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삼하6:12-23)

서론: 2025년 마지막 주일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다윗이 받은 응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고 결국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존경받는 왕이 되었고, 마음의 소원이었던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몸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고, 이를 본 아내 미갈은 다윗을 향해 비아냥 거렸습니다(삼하6:20). 이때 다윗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며,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말했습니다(삼하6:21). 자기가 춤을 추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음을 고백한 다윗은 언약과 말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갈수록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1. 언약케는 말씀 - 복음을 상징

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케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 내가 배운 것, 체험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게 하옵소서(잠3:5-6).

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성령 인도임을 알고, 모든 일에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완전한 승리의 길임을 알고 다른 것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잠1:33, 시119:165).

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문제와 어려운 일들보다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 한 해, 한 주,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며,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말씀으로 답을 내는 매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복음 제대로 알고 말씀 따라 가면

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축복받는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 고지식하게 보일지라도 강단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따라가며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 복음 모르면 틀림없이 실패하고 무너짐을 알고 날마다 복음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 열심보다 중요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작년보다도 올해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축복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을 하나님이 더 강하고, 더 축복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드신 그 사실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